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및 감성지능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김가야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Ga-Ya Kim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unkyeong Colleg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및 감성지능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21년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간호학과 4학년 132명을 편의표집으로 조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5.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와 ANOVA,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감성지능($\beta=.46, p<.001$), 임상수행능력($\beta=.18, p=.033$), 임상실습 만족도($\beta=.18, p=.027$)이었으며, 간호전문직관의 설명력은 52%이었다.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하여 간호학과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감성지능, 간호전문직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understand to investigate the convergenc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From November 10 to November 20, 2021, 132 fourth-year nursing students 132 students in 4th year nursing department were surveyed using a convenience sampling.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ANOVA,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Statistics 25.0. As a result of the study,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were emotional intelligence($\beta=.46, p<.001$), clinical performance ($\beta=.18, p=.033$),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beta=.18, p=.027$)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nursing professionals was 52%.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a program that can improv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of nursing students through factors affecting professional nursing values.

Key Words : Nursing Student,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Emotional Intelligence, Nursing Professionalism.

*Corresponding Author : Ga-Ya Kim(20170011@mkc.ac.kr)

Received December 12, 2021

Accepted February 20, 2022

Revised February 1, 2022

Published February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총합으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에 대한 직업의 의식적인 견해이다[1]. 간호전문직에서 주요한 6가지 측면은 환자와 그들 가족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높은 수준의 지식과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이 확립되어야 하고, 휴머니즘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며, 사람들의 문화와 신념에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2].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면 간호사는 의료 현장의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양질의 간호 제공을 할 수 있으며, 직업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고 직무 만족이 향상되어 재직의도를 높인다[3]. 선행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수행능력과 환자안전관리활동 실천이 높아 간호대학생의 긍정적 사고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4]. 반면, 간호전문직관이 정립되지 못하여 확고한 이념과 목표가 없이 간호활동을 하게 될 때 특히 신규간호사의 경우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간호의 미래를 이끌어갈 간호대학생이 학교에서부터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5].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의 정립은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임상수행능력은 다양한 간호실무 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 및 태도를 통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6].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이란 다양한 임상 실습현장에서 간호교육자나 현장지도자가 간호대학생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임상수행의 결과를 측정하는 것으로[7] 궁극적인 목적은 환자에게 질적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임상실무에 적용해 보거나 간호사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 간호지식과 술기의 적용과정을 배우고,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미리 확립하게 된다[8].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임상수행은 미래의 직업을 일부 경험하는 과정이며 간호전문직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평가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간호대학

생은 임상실습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임상실습에서 대인관계 등 여러 사건들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친숙하지 못한 병환 환경에서 이론적 지식 적용의 어려움과 역할의 모호성, 생소함, 불확실성, 지도교수와 동료들과의 관계형성 어려움, 병원환경의 두려움,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대인관계 무력감 등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9]. 이러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은 임상수행능력과 실습만족도가 떨어져서 학습능력을 저하시킨다[10].

임상수행능력은 앞으로 간호사가 되어야 할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이며[11]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간호학생 때부터 체계적인 실습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감성지능이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긍정적 감정 성향으로[12]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다. 또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긍정적 감정 정서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13]. 이는 개인의 심리적 자원에 속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사람 중심의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직으로서 간호 현장에서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따라 적합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므로 문제의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감성지능이 요구된다[14].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평가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효과적인 대처방식을 보인다[15]. 반면, 감성지능이 낮은 사람은 정서적·심리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감성지능이 높은 간호대학생일수록 자신의 감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또한 효율적인 감성조절 능력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학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감, 역할갈등, 피로감, 좌절감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7]. 즉 감성지능은 간호대학생이 보다 건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인간관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압박에 대한 탄력적인 대처방안으로 사용된다[18].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의 정립은 향후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가치를 높이며 전문직으로 자부심

과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감성지능,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하고,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및 임상수행 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및 감성지능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 2)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및 감성지능이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 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감성지능,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융복합인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및 감성지능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M시에 소재한 M대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양측검증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중간 효과크기 .15, 로 선정하였을 때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는 141명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156명을 선정하였다. 이 중 응답 내용이 불성실한 24(15%)부를 제외한 132(8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임상수행능력

Schwirian(1978)의 Six-Dimension Scale[19] 기반으로 Lee 등[20]이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Choi[21]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임상수행능력에 관한 5가지 영역을 측정하는 도구로 총 45문항으로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간호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45점에서 최고 225점까지이고,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못한다' 1점에서 '매우 잘한다' 5점이며 측정항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 등[20]이 개발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 이었으며 Choi[2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8$ 이었다.

2.3.2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는 Jo와 Kang[22]이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와 Lee[23]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31문항으로 실습교과 3문항, 실습내용 6문항, 실습지도 9문항, 실습환경 7문항, 실습시간 3문항, 실습평가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항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23]가 개발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5$ 이었다.

2.3.3 감성지능

감성지능에 대한 측정은 Wong과 Law[12]가 개발한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을 Hwang[24]이 번안한 감성지능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감성이해(4문항), 타인감성이해(4문항), 감성조절(4문항), 감성 활용(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항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Hwang[2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7$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5$ 이었다.

2.3.4 간호전문직관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Yoon 등[25]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5가지 영역의 총 29문항으로, 사회적

인식 8문항(최소8, 최대40), 간호의 전문성 5문항(최소5, 최대25), 전문직 자아개념 9문항(최소9, 최대45), 간호실무역할 4문항(최소4, 최대20), 간호의 독자성 3문항(최소3, 최대15)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Yoon 등 [25]의 개발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2$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94$ 로 나타났다.

2.4 자료수집

2021년 11월 10일부터 2021년 11월 20일까지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 사전 설명을 실시한 후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서면 동의서 받았다. 언제든지 연구 참여 철회가 가능하고,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전산처리를 실시하며, 연구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Statistics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감성지능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감성지능 및 간호전문직관은 t-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 4) 변수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 5)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융복합적인 영향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27(20.5%), 여학생이 105명(79.5%)이었다. 연령은 평균 23.02 ± 1.56 세이었고 20-24세 117명(88.6%), 25세 이상 15명(11.4%)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매우 만족' 110(83.3%), '만족' 19(14.4%), '보통' 3(2.3%)이었다. 실습동료와의 관계는 '매우 만족' 63명(47.7%), '만족' 47(35.6%), '보통' 18(13.6%)이었다.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39(29.5%), '보통' 42(31.8%)이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132)

Variable	Categories	n(%)
Gender	Male	27(20.5)
	Female	105(79.5)
Age	20-24	117(88.6)
	25-30	15(11.4)
Satisfaction in major	Very dissatisfied	0
	Dissatisfied	0
	Moderate	3(2.3)
	Satisfied	19(14.4)
	Very satisfied	110(83.3)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Very dissatisfied	0
	Dissatisfied	4(3.0)
	Moderate	18(13.6)
	Satisfied	47(35.6)
	Very satisfied	63(47.7)
Satisfaction with the amount of practice	Very dissatisfied	0
	Dissatisfied	9(6.8)
	Moderate	42(31.8)
	Satisfied	42(31.8)
	Very satisfied	39(29.5)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 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감성지능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감성지능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 임상수행능력의 평균평점 3.99 ± 0.51 점이었고, 임상실습 만족도는 평균평점 3.85 ± 0.53 점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 평균평점 4.11 ± 0.57 점, 간호전문직관 평균평점 3.93 ± 0.52 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egree of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32)

Variable	Min	Max	M \pm S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2.80	5.00	3.99 \pm 0.5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2.26	5.00	3.85 \pm 0.53
emotional intelligence	2.75	5.00	4.11 \pm 0.57
nursing professionalism	3.00	4.93	3.93 \pm 0.5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감성지능 및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F=3.58, p=.031$),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F=4.30, p=.01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전공만족도($F=3.15, p=.046$), 동료와의 관계($F=8.21,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감성지능은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F=8.0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은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F=5.26, p<.00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 '낮음'이라고 답한 경우

에 비해 간호전문직관의 정도가 높았다.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3.4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감성지능 및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수행능력($r=.55, p<.001$), 임상실습 만족도($r=.56, p<.001$), 감성지능($r=.69, p<.001$)로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r=.55, p<.001$)과 임상실습 만족도($r=.60, p<.001$), 감성지능($r=.60, p<.001$), 임상실습 만족도($r=.56, p<.001$)와 감성지능($r=.57, p<.001$)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3. Difference of Fact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2)

Variable	Categorie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emotional intelligence			nursing professionalism		
		Mean±SD	t/F (p)	Scheffe	Mean±SD	t/F (p)	Scheffe	Mean±SD	t/F (p)	Scheffe	Mean±SD	t/F (p)	Scheffe
Gender	Male	3.95±0.54	-.42 (.675)		3.82±0.53	-.36 (.722)		4.16±0.57	.47 (.641)		3.94±0.48	.09 (.925)	
	Female	4.00±0.51			3.86±0.53			4.10±0.58			3.93±0.53		
Age	20-24	3.94±0.50	-3.09 (.002)		3.84±0.54	-.68 (.496)		4.10±0.60	-1.36 (.186)		3.93±0.53	-.05 (.960)	
	25-30	4.36±0.46			3.94±0.43			4.24±0.34			3.94±0.45		
Satisfaction in major	Very dissatisfied	0	3.58 (.031)		0	3.15 (.046)	c/e	0	1.23 (.297)		0	2.90 (.058)	
	Dissatisfied	0			0			0			0		
	Moderate	3.70±0.77			3.20±0.56			3.79±0.44			3.86±0.53		
	Satisfied	3.73±0.55			3.74±0.57			3.97±0.72			3.67±0.56		
	Very satisfied	4.04±0.49			3.89±0.51			4.15±0.55			3.98±0.50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Very dissatisfied	0	1.69 (.182)		0	8.21 (.001)		0	2.23 (.088)		0	.96 (.412)	
	Dissatisfied	3.88±0.06			4.06±0.16			4.16±0.52			3.91±0.25		
	Moderate	3.91±0.38			3.57±0.28			3.86±0.57			3.85±0.45		
	Satisfied	3.97±0.50			3.81±0.46			4.06±0.52			3.86±0.54		
	Very satisfied	4.04±0.57			3.96±0.61			4.23±0.60			4.01±0.53		
Satisfaction with the amount of practice	Very dissatisfied	0	4.30 (.010)	b/e	0	2.43 (.068)		0	8.00 (.001)	b(c,d) ,e	0	5.26 (.002)	b(c,d) ,e
	Dissatisfied	3.69±0.28			3.63±0.38			3.49±0.50			3.40±0.32		
	Moderate	3.87±0.39			3.73±0.50			3.95±0.52			3.86±0.46		
	Satisfied	4.03±0.46			3.90±0.45			4.21±0.53			3.96±0.54		
	Very satisfied	4.15±0.66			3.99±0.62			4.33±0.55			4.10±0.52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32)

Variabl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emotional intelligence	nursing professionalism
	r(p)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60 (<.001)	1		
emotional intelligence	.60 (<.001)	.57 (<.001)	1	
nursing professionalism	.55 (<.001)	.56 (<.001)	.69 (<.001)	1

3.5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실습량에 대한 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감성지능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을 산출한 결과 공차한계는 .23~.91로 모두 .1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VIF 지수는 1.10~4.32의 값으로 기준인 10 이하로 분포되어 있어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21.21, p<.001$),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성지능($\beta=.46, p<.001$), 임상수행능력($\beta=.18, p=.033$), 임상실습 만족도($\beta=.18, p=.027$)이었다.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설명력은 52%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Professionalism (N=132)

Variable	Nursing Professionalism				
	B	SE	β	t	p
(Constant)	.61	.29		2.08	.040
Emotional intelligence	.42	.08	.46	5.41	<.001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19	.09	.18	2.15	.033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18	.08	.18	2.23	.027
$R^2=.54, \text{ Adjusted } R^2=.52, F=21.21(p<.001)$					

*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감성지능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하고,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감성지능 및 간호전문직관을 파악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93 ± 0.52 점,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9 ± 0.51 점, 임상실습 만족도는 3.85 ± 0.53 점, 감성지능은 5점 만점에 4.11 ± 0.57 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93 ± 0.52 점으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학년을 대상으로 측정한

Jang[26]의 3.81 ± 0.52 점, Kim 등[27]의 3.77 ± 0.42 점, Kim 등[28]의 3.60 ± 0.45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은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직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간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의 정립과 간호전문직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의 5점 만점에 3.99 ± 0.51 점으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학년을 대상으로 측정된 Jang[26]의 4.03 ± 0.51 점보다 낮았으며 Kim 등[27]의 3.77 ± 0.42 점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4학년 학생들은 1,000시간의 임상실습을 통하여 다양하게 학습된 지식과 기술의 습득으로 임상수행이 스스로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신감의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은 학생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가지는 내적 요인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을 때 향상 된다는[12] 연구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임상수행능력을 조사한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실제 임상실습현장에서 객관적 차원의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하는 후속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5 ± 0.53 점으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학년을 대상으로 측정된 Lee[23]의 3.24 ± 0.49 점, Ju[28]의 3.37 ± 0.42 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임상실습만족도는 전공만족도, 동료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감성지능은 5점 만점에 4.11 ± 0.57 점으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학년을 대상으로 측정된 Kim[29]의 3.85 ± 0.43 점, Jeong[30]의 3.84 ± 0.50 점, Kim 등[27]의 3.76 ± 0.43 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평가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효과적인 대처방식을 보인다[15]. 이는 Lee 등[31]의 선행연구에서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의 향상과 증진에 효과가 있으며,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감성지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가 변수간의 유의미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간호의 본질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더불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며 간호를 받는 대상자에게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21]하며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졸업 후 신규 간호사로서의 현장 적응을 돕고 이직 의도를 낮추며 간호기술을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면서 간호 업무를 정확하게 습득하고 전문직 간호 업무를 수행하며[32], 성공적인 대인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인과의 협력을[33]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간호대학생이 추후 신규간호사로서 21세기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간호전문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수행능력($r=.55, p<.001$)과 임상실습 만족도($r=.56, p<.001$), 감성 지능($r=.69, p<.001$), 임상실습 만족도($r=.56, p<.001$)와 감성지능($r=.57, p<.001$)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감성지능과 임상실습 만족도이었다.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설명력은 52%이었고, 감성지능,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감성지능이 간호전문직관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확대해석하거나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에 연구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임상실습 만족도, 감성지능 및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을 미치는 융복합적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E. J. Yeun, Y. M. Kwon & O. H. Ahn.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 [2] W. O. Jeon & K. L. Lee. (2016). Factors Influencing Hospital Nurses' Turnover Intention: A Cross-sectional Surve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1), 94-106. DOI : 10.5392/JKCA.2016.16.01.094
- [3] S. Y. Choi & M. A. Lee. (2018). Effects of Job Embeddednes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Intent to Stay in Hospital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24(3), 234-244.
- [4] H. J. Jo. (2021).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Gender sensitiv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5] E. J. Yeun, Y. M. Kwon. (2007).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 13(3), 285-292.
- [6] Y. O. Kim. (2008). Nursing Students' Needs for Clinical Nursing Education. *J Korean Acad Nurs Adm*. 18(1), 25-33.
- [7] W. H. Lee., J. G. Kim., J. S. Yoo., H. K. Hau., K. S. Kim & S. M. Yim. (1991). A study in instrument development of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Yeonse Nursing*, 13, 17-29.
- [8] J. Y. Kang., Y. J. Jeong & K. R. Kong. (2018). Threats to identity: A grounded theory approach on student nurses' experience of incivility during clinical place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8(1), 85-95.
- [9] S. J. Park. & B. J. Park, (2013). Relationship of clinical practice stress to clinical competence among one college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1(4), 313-322.
- [10] E. H. Kim.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fatigu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 Statistics*, 40(1), 24-36.
- [11] Y. S. Song & J. Y. Lee. (2020).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moral sensitivity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2), 157-166.

- [12] C. S Wong & K. S. Law. (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 243-274.
- [13] P. Salovey & J. D. Mayer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 [14] Zhu Y, Liu. C, Guo. B, Zhao, L & Lou. F. (2015). The impa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work engagement of registered nurses: The mediating role of organisational justic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4(15-16), 2115-2124.
- [15] G. Benson, J. Ploeg., & B. Brown. (2010). A cross sectional study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30(1), 49-53.
- [16] J. E. Song & H. J. Chae. (2014). Differences in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502-512.
DOI : 10.5977/jkasne.2014.20.4.502
- [17] C M. Ko. (2017). Effects of empower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um stress and burn out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5(2), 120-127.
DOI : 10.17547/kjsr.2017.25.2.120
- [18] J. H. Yu & Y. M. Lee. (2017). Factors influencing the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y Convergence*. 20(5), 385-393.
- [19] M. P. Schwirian. (1978).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nurses : A multidimensional approach. *Nursing Research*, 27, 347-351.
- [20] W. H. Lee, C. J. Kim, J. S. Yoo, H. K. Hur, K. S. Kim & S. M. Lim (1990). Development of a clinical competency measurement tool for student. *Nursing Polic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13, 17-29.
- [21] M. S. Choi.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2] K. J. Cho & H. S. Kang. (1984). Study on self 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4(2), 63-74.
- [23] S. Y. Lee. (2001).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 Direction for Clinical Education: Focused on Maternity Nursing Practice. *J Korean Acad Soc Nurs Edu*, 22(4), 504-513.
- [24] P. J. Hwang. (2007).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n employee's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25] J. E. Yoon, Y. M. Keon. & A. O. Hui. (2005). Nursing Intuition Measurement Tool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 [26] H. J. Jang. (2020). Effects of Image of Nurse, Clinical Performance,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7(3), 635-648.
- [27] H. W. Kim & M. S. Yoo. (2020). The Influence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4(2), 41-54.
- [28] H. J. Ju. (2017).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Performance Ability, Satisfaction, and Critical Thinking on Nursing Professional Self Concep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8(15), 213-224.
- [29] M. S. Kim.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linical performance among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2(4), 5-16.
- [30] M. H. Jeong. (2020). The Relationship among Learning Engagement,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 Regulation.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7(5), 1268-1284.
- [31] O. S. Lee & M. O. Gu. (2014). Development and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ixed methods research. *J Korean Acad Soc Nurs Educ*, 44(6), 682-696.
- [32] J. H. Song. (2020). *Performance confidence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core basic nursing skills experiences*.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Daejeon.
- [33] Anne, C. H & McQueen. B. A. (2004).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work.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7(1), 101-108.

김 가 야(Ga-Ya Kim)

[정회원]



- 2011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3년 9월 : 아주대학교 간호학과 (박사수료)
- 2017년 3월 ~ 현재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간호이론, 간호리더십
- E-Mail : 20170011@mkc.ac.kr